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혜경[†]

중원대학교, 부교수

(2021년 6월 4일 접수: 2021년 6월 28일 수정: 2021년 6월 29일 채택)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Hey-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June 4, 2021; Revised June 28, 2021; Accepted June 29, 2021)

요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과 비교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95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경제수준, 전공계열, 전공선택동기, 성적, 전공만족도 및 부모의 진로지지를 예측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94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진로준비행동 총 변화량의 50.5%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좀 더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전공만족도, 진로지지, 진로준비행동, 부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major satisfaction and parents' career support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s basic data for making active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April 15 to May 14, 2021 195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were followed by Economic level, Major category, Motivation of the major, Grade, the major satisfaction and parents' career support.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50.5percent of the total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k777@jwu.ac.kr)

changes in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through increase the major satisfacton and enhance parents career support in order to the activ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Par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어릴적 꿈이자 희망으로 인한 능동적인 선택도 있지만,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주변에서 제공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토대로 수동적인 선택도 많다. 대학생의 전공은 미래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 선택이든 수동적 선택이든 졸업 후 선택할 직업과 다르다면, 전공에 대해 만족하기 어렵고 진로에 대해 혼란이 초래된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을 위한 입사원서를 작성하면서 전공선택에 대한 후회를 경험한 경우가 50%이상으로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 또한 힘들게 대학생활을 마치고 전공에 따라 직업을 찾고 난 후에도 직장을 포기하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전공이 미래의 직업 및 진로와 일치하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며[2], 높아진 전공만족도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켜 좀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3]. 이처럼 대학생의 전공과 그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취업과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있다[4-5]. 따라서 전공 만족도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즉 자신의 직업으로 이루고자하는 목표와 욕구[6]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7-8].

현대인들의 직업 가치관은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에 맞춰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와 같은 외적 변인과 개개인이 속한 환경 내에서의 내적 변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우선 사회문화적 외적 변인으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성취감과 자아실현이 직업가치관의 우위에 있었지만[9],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물질적 보상이 중요해졌다[10]. 개개인의 내적 변인으로는 우선 자녀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자녀의

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집단주의적 문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된 경쟁 속 통제된 환경에 익숙해져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있다[11]. 자녀의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영향이 크고[12], 부모의 진로지지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관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이미 성인이 된 대학 졸업반 학생들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할지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부모의 진로지지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며, ‘헬리콥터 부모’, ‘캥거루 부모’등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부모의 무분별한 개입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녀의 삶에 전반적인 개입과 간섭이 아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삶의 경험치가 높고,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모세대의 시각으로 조언과 충고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는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자녀의 강점을 부각시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당연한 태도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자녀의 적성과 특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적성과 특성에 맞는지 확신이 서기 전이라면, 대학생 자녀의 전공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살피며,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된 집단감염을 포함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직업과 직종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개개인은 평생에 걸쳐 진로 탐색을 반복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용하고 결정할 진로준비행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14]. 진로준비행동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결정된 진로목표달성을 위해 행위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의미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준비행동은 이후 진로의 탐색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15], 자발적인 동기 및 의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는 스스로 정한 능동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한 근간이 되는 행동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꿈과 희망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위한 정보수집도 포함이 된다.

이에 종합해보면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재 취업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16] 대학생들의 행동적 측면을 연구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긍정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15부터 5월 14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00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9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6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195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된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교육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과 경제수준의 선택 문항을 두었고, 전공관련 특성으로는 전공 계열과 전공선택 동기 및 성적의 선택문항을 두고 표시하게 하였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이동재[17]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9이었다.

2.3.3.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는 부모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다 [18]. 척도는 이상희[19]가 개발한 부모의 진로지지 척도를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5 이었다.

2.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20]이 개념화하였고, 취업준비행동과 직업탐색행동을 모두 포함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며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위해 행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위해 신하영[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7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좀 더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8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해당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설명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뒤,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95명의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79(40.5%), 여학생이 116명(59.5%)이었다. 1학년 53명(27.2%), 2학년 86명(44.1%), 3학년이 29명(14.9%)이고 4학년은 27명(13.8%)였다. 경제수준에 상으로 답한 이는 50명(25.6%)이며 중은 135명(69.2%)이었고, 하로 답한 이는 10명(5.1%)였다. 전공의 의료보건계열인 학생은 114명(58.5%), 항공계열은 33명(16.9%), 사회문화계열 21명(10.8%)이었고 이공계열 학생은 27명(13.8%)이었다. 전공선택 동기로는 취업이 용이해서라고 답한 이는 69명(35.4%), 장래희망은 114명(58.5%), 타인의 권유가 12명(6.2%)였다. 성적에는 평점 4.0이상 30명(15.4%), 3.0이상 4.0미만은 135명(69.2%) 3.0미만은 30명(15.4%)였다.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최대 100점, 최소 39점, 그리고 평균 80.22 ± 12.48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4.01 ± 0.62 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지지는 최대 100점, 최소 30점, 그리고 평균 76.86 ± 13.35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84 ± 0.67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5)

	Categories	N(%)
Gender(average age : 20.65)	Male	79(40.5)
	Female	116(59.5)
School year	1 School year	53(27.2)
	2 School year	86(44.1)
	3 School year	29(14.9)
	4 School year	27(13.8)
Economic level	High	50(25.6)
	Middle	135(69.2)
	Low	10(5.1)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114(58.5)
	Aviation	33(16.9)
	Humanities and Social	21(10.8)
	Engineering	27(13.8)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69(35.4)
	Hope to have in the future	114(58.5)
	Recommendation of others	12(6.2)
Grade	More than 4.0	30(15.4)
	3.0~4.0	135(69.2)
	Less than 3.0	30(15.4)

Table 2. The degree of the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and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N=195)

Variables	Mini/Max	Total Items M±SD	Item M±SD
Major satisfaction	39/100	80.22±12.48	4.01±0.62
Parents's career support	30/100	76.86±13.35	3.84±0.67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17/85	59.96±12.80	3.53±0.75

진로준비행동은 최대 85점, 최소 17점이었으며 평균 59.96±12.80점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53±0.75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남성(4.14±0.62)이 여성(3.92±0.46)보다 높았고($t=2.46, p=.015$), 부모

의 진로지지도 남성(3.96±0.66)이 여성(3.76±0.66)보다 높았으며($t=2.11, p=.037$)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부모의 진로지지도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경제수준을 상으로 답한 경우(4.23±0.59)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F=4.53, p=.012$), 부모의 진로지지도 상으로 답한 경우(4.13±0.59) 중이나 하 보다 높게 나타났고($F=11.30, p<.000$) 진로준비행동도 경제수준이 상(3.73±0.73)일 때

Table 3.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parents' career support and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N=195) (scheffe test)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Parents's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MD±SD	t/F(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4.14±0.62	2.46	3.96±0.66	2.11	3.65±0.84	1.88
	Female	3.92±0.46	(.015)	3.76±0.66	(.037)	3.44±0.68	(.061)
School year	1 School year	4.10±0.61		4.00±0.54		3.69±0.82	
	2 School year	4.04±0.60	1.66	3.81±0.69	1.52	3.45±0.70	1.47
	3 School year	3.97±0.63	(.177)	3.76±0.68	(.212)	3.40±0.82	(.225)
	4 School year	3.79±0.68		3.73±0.78		3.58±0.69	
Economic level	High	4.23±0.59		4.13±0.59a		3.73±0.73a	
	Middle	3.93±0.62	4.53	3.79±0.64a	11.30	3.51±0.71a	6.78
	Low	4.08±0.67	(.012)	3.16±0.82b	(<.000)	2.81±0.99b	(<.001)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3.94±0.62		3.74±0.65		3.32±0.76a	
	Aviation	4.13±0.73		3.93±0.61		3.77±0.66ab	
	Humanities and Social	4.15±0.51	1.41	3.91±0.94	2.57	3.57±0.59a	10.05
	Engineering	4.07±0.54	(.241)	4.11±0.49	(.056)	4.07±0.58b	(<.000)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3.82±0.62		3.71±0.59		3.19±0.75a	
	Hope to have in the future	4.13±0.60	5.64	3.95±0.65	3.92	3.76±0.62b	14.66
	Recommendation of others	4.01±0.66	(.004)	3.59±0.99	(.021)	3.30±1.12ab	(<.000)
Grade	More than 4.0	4.12±0.59		4.07±0.69a		3.66±0.66a	
	3.0~4.0	4.01±0.63	.81	3.84±0.64ab	3.47	3.57±0.73ab	3.92
	Less than 3.0	3.91±0.62	(.447)	3.62±0.70b	(.033)	3.19±0.88b	(.021)

가장 높았으며, 중, 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F=6.7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준비행동은 이공계열(4.07±0.58)이 가장 높았고 항공계열(3.77±0.66), 사회문화계열(3.57±0.59), 의료보건계열(3.32±0.7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F=10.05, $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로 장래희망(4.13±0.60)이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타인의 권유(4.01±0.66) 그리고 취업이 용이해서가(3.82±

0.62) 가장 낮았으며(F=5.64, $p=.004$), 부모의 진로지지에서 장래희망(3.95±0.65)이 가장 높았고, 타인권유(3.59±0.99)가 가장 낮았으며(F=3.92, $p=.021$), 진로준비행동에서도 장래희망(3.76±0.62)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이 용이해서가(3.19±0.75)가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진로지지는 성적이 중과 하보다 상일 때(4.07±0.69)가 가장 높았고(F=3.47, $p=.033$), 진로준비행동에도 성적이 상일 때(3.66±0.66) 중과 하보다 높았으며(F=3.92, $p=.02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195)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Parents's career support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r(p)		
Major satisfaction	1		
Parents's career support	.542 ($<.001$)	1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461 ($<.001$)	.620 ($<.001$)	1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r=.542, p<.001$)와 진로준비행동($r=.461, p<.00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r=.620, p<.001$)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5.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수준, 전공계열, 전공선택동기 및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수준은 중, 전공은 항공계열, 전공선택동기는 타인권유, 성적은 3.0~4.0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76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 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98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193~.875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143~5.189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50.5%($R^2=.505$, Adj $R^2=.476$)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6.944, p<.001$). 대상자 부모의 진로지지($\beta=.436$)가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공만족도($\beta=.169$)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및 대학생의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4.01점 이었다. 이시라[22]의 연구결과 3.77, 최현주[23]의 연구결과 3.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전공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던 선행연구[24]와 달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상일 때 높았다. 전공선택동기는 취업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장래희망으로 선택했을 때 높았는데, 이는 외적인 환경요인보다는 개인의 만족에 있으며,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이나 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았던 결과[24]와 일치한다. 또한 본인의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of career preparation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N=195)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953	.352		2.708	.007			
Economic level	High								
	Middle	.036	.097	.021	.367	.714			
	Low	-.326	.193	-.096	-1.684	.094			
Major category	Medical Health								
	Aviation	-.180	.128	-.118	-1.405	.162			
	Humanities and Social	-.237	.153	-.098	-1.550	.123			
	Engineering	.209	.152	.096	1.375	.171			16.994
Motivation of the major	Got a job easy						.505	.476	(<.001)
	Hope to have in the future	-.164	.177	-.105	-.926	.355			
	Recommendation of others	.104	.181	.068	.576	.565			
Grade	More than 4.0								
	3.0~4.0	-.085	.119	-.041	-.712	.478			
	Less than 3.0	-.117	.116	-.056	-1.014	.312			
Major satisfaction		.204	.078	.169	2.609	.010			
Parents's career support		.492	.076	.436	6.465	.000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준비를 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24].

부모의 진로지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에 관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부모님이 70%이상이라는 연구결과[25]에 비취 진로탐색과 취업준비행동에서 부모의 지지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26].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진로지지를 높게 평가했지만, 박희정[2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미하게 높았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아졌다. '금수저'라는 용어처럼 자녀의 진로에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요하다는 이상희[19], 장현지와 홍아정[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부모의 진로지지 중 정보적 지지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고한 송현심과 홍혜영[2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부

모의 경제적 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공선택동기가 장래희망일 때가 가장 높았고, 취업이 용이해서, 타인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도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았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는 5점 만점에 3.53점 이었고, 경제수준에 따라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선택동기가 장래희망일 때, 타인권유, 취업이 용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활발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생의 진로에 관해 스스로 고민하고, 탐색하며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의 진로지지도 높아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좀 더 활발한 진로준비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공만족

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와 자기 이해 및 직업이해를 통해 전공을 선택할 때 전공만족도가 높다[3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개인적 특성 외에 부모와 가까운 지인들의 영향이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오은영[3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32]와는 정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로준비행동에 소홀해진다는 연구결과[33]와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대학교 전공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의견보다도 부모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에 비춰볼 때, 자신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없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는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의 결과를 나타낸 박희정[2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0.5%였다. 이는 윤시혜[3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45.5%의 설명력을 같은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과 직업탐색행동이 모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의 진로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이 확인된 박희정[27]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년 실업난으로 대학입학부터 전공선택을 함에 있어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취업률을 고려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후에도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고려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한 진로준비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및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전공만족도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부모의 진로지지와 전공만족도가 영향 요인이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부모의 진로지지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부모의 진로지지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공만족도, 부모의 진로지지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과제관리번호:2020-017)

References

1. Daehaknaeil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The Inconvenient Truth of Double Major Students. p.1-23, <https://www.20slab.org/archives/378>, (2013).

2. M. S. Seo,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mage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Formation -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with Aviation Service Major -"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0, No. 1, pp.55-77, (2020)
3. W. D. Kang,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s,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09).
4. S. Y. Kim,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ates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7).
5. S. K. Choi, *The Relation on Guard Major College Students' Sense of Values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e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12).
6. E. Im, "Developing a instrument for evaluating fitness of college major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3, pp.1-22, (2006)
7. M. S. Kim, S. M. Park, C. G. Wang, H. A. Seo, Y. J. Ju, K. Y. Lee, E. S. Choi, "The Motivation of selecting major,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view of occupation for EMT students", *The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Vol. 14, No. 3, pp.29-40, (2010).
8. J. Y. Jung,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1, No. 1, pp.53-83, (2013).
9. Y. J. Lee, *A study on the discrepancy of Secretary's job valu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 career suc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10. H. S. Park, "A Study on the Work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4, No. 4, pp.95-111, (2011).
11. I. J. Choi, "Cultural Psychological Implication of the Korea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3, pp.761-773, (2006).
12. J. H. Hwang,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betwee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7).
13. S. J. Yun,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and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1).
14. J. Y. Ha, *A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Exploratory Intention, Personalit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Social Cognitiv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15. H. Y. Sun, J. K. Lee, S. K. Kim,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onc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2, pp.1-24, (2012).
16. S. S. Ahn, K. H. Shin, Y. S. Hahn, J. K. Tak, T. Y. Yoo, T. Y. Han, J. O. Hwang,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Unemployment and Job Search Intensity", *The Korean Society Women Psychology*, Vol.10, No. 3, pp.375-404, (2005).
17. D. S.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 Perceived by the Publ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995).

18. J. A. Kim, *A study on Ego Defense Mechanism and Anxiety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and Self-Perce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4).
19. S. H. Lee, "Development of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1539-1553, (2009).
20.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311-333, (1997).
21. H. Y. Shin, *The Effect of a Career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a o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7).
22. S. R. Lee. *The Effects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23. H. J. Choi.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Vol.10, No.4, pp.225-237, (2016).
24. J. H. Seo. *Effects of Nursing Image, Satisfaction in major, Ego-Resili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25. J. C. Lee, M. J. Park, J. H. Kim,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Expectation About Career Counseling Amo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2, pp.111-128, (2007)
26. J. L. Shin, C. S. Hyun, "Influence of Parent Support, Hope, and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KEWMS)*, Vol. 11, No. 2, pp.45-59, (2008)
27. H. J. Park. *Relationships between purpose in Lif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Self-Manage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2018).
28. H. J. Jang, A. J. Ho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up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Learn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srch*, Vol. 33, No. 2, pp.1325-1350, (2014)
29. H. S. Song, H. Y. H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17-40, (2010)
30. G. N. Lee, C. Y. Jyung,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1, No. 1, pp.87-110, (2009)
31. E. Y. Oh, *Effects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s of Airline Service Students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entoring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2019).
32. J. H. Lee, S. H. Kim,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HRD Research*, Vol. 14, No. 2,

- pp.77-96, (2018)
33. S. H. Yo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9).